전남도의회 F1대회 감사 쟁점별 입장

"KAVO 왜 전남도 통제 안 따랐나" "천원 한장까지 전남도가 관여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22일 F1(포뮬러원) 대회 지원본부와 대회운영법인인 KAVO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회 운영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날 KAVO 정영조 대표를 출석시켜 대회 개최 이후 불거진 개최권료와 중계권료의 '패키지' 계약 문제, 경주장 건설 지연, 공사비 증액 문제 등에 대해 따졌다.

◇경주장 건설 지연=정영조 대표는 이날 최철훈(여수 6·민주) 의원의 "경주장 건설 지연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기상 상태가 나빴고 확정된 설계가 나오는 것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예컨대 가설스탠드의 경우 지난 2월 설계가 마무리됐지만 이사회에 참석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수익 구조를 위해 스탠드 규모를 애초보다 8000석~1만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재설계에 반영한 뒤 결과적으로 전남도의 회계 감사까지 겹치면서 7월에야 발주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KAVO가 경주장 건설 책임을 맡고 있지만 재무적 투자자 및 전남도의 신속하지 못한 처리도 한몫했다는 뉘앙스였다. 가격도 네덜란드 자재는 비용이 400억원에 달했고, 한국산은 300억원인 반면 중국은 150억원에 불과,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커 중국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사비 1025억?, 861억?=정 대표는 장일(진도 1·민주)·이용재(광양 1·민주) 의원의 "경주장 건설이 늦어지면서 추가 공사비가 1025억이나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말"이라고 했다.

전남도가 앞서 특수전자설비 및 가설스탠드 설계누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633억), FIA·FOM 요구시설 설치로 인한 공사 증액(110억), 경주장 편의시설 개선(84억), 법정부담금 발생(198억) 등 1025억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한 데 대해 861억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왜 KAVO만 문제냐=정 대표는 KAVO가 민간 기업인 탓에 전남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정보 공유나 협조 체계 구축이 힘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1000원짜리 식사비 결제도 전남도가 참석하는 카보 이사회에서 결정해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전남도가 카보 운영에 충분히 관여하고 있는 만큼 왜 조직 축소를 거론하는 지 되물었다. 이어 "공기업 성격을 띨 정도로 전남도가 충분히 관여하고 있다"며 KAVO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남도에 대한 서운함도 피력했다. "'마녀사냥'이나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라며 격한 어조로 반발하기도 했다.

◇개최권료 과다논란 및 내년 대회 개최 여부=다른 나라에 비해 개최권료가 지나치게 많아 '굴욕 협상'이라는 데 대해서는 "지난 2006년 1월 당시 전남도 정무부지사, 투자심의관과 함께 계약을 했다. 당시 2년 개최권료를 현금으로 요구했으나 1년 단위로 끊어왔다"면서 "중계권료는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 덜했으면 덜했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경우 중계권료가 4300억에 이른다고도 했다.

수천억원의 혈세만 축내고 수익은 창출하지 못하는데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농업 예산이 대폭 깎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한 번의 대회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개인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효자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해마다 적자 논란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대회를) 안해야 되지 않겠냐"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전남에 F1대회를 추진하게 된 것을 후회한다"고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2일 전남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F1 대회 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회운영법인인 KAVO 정영조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욕이야 하든지 말든지

광주·전남 기초의회 의정비 편법 과다 인상

여론 무시·편파 심의위…민노당 의원들 반발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주민 여론에 반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광주지역 기초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도 안 돼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의정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2011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7.73% 인상된 연 3469만원으로 결정했다.

남구의회는 지난해에도 의정비를 10.6% 인상했으며, 올해 인상된 의정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액인 3338만원보다 131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광주 기초의회의 경우 동구를 제외하고 서구와 광산구, 북구의회가 5~10% 가까이 의정비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중이다. 앞서 광주지역 각 기초의회는 최근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나주시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20% 인상된 3266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나주시의회는 전남의 시 단위 기초의회 올해 평균 의정비가 3400여만원인데 반해 나주는 2952만원으로 450여만원이 적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남구의회와 나주시의회 모두 의정비 인상시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의회의 경우 주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3.4%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나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는 관계자들을 대거 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배진하, 이이현 의원이 의정비 인상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비 인상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 반대 의견을 제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했다"라고 반발했다.

나주시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임연화 의원이 인상안을 의결할 경우 인상금액 300여만원을 사회단체 등에 헌납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놓고 곳곳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현지를 방문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무부지사 명칭 경제부지사로 환경 전담 녹색성장정책실 신설

전남도 조직 개편 입법예고

전남도의 정무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에너지분야를 전담하는 녹색성장정책실이 신설된다.

전남도는 22일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기능쇠퇴와 유사·중복분야를 통폐합하고 1과를 증설하는 내용의 행정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3급 정무특별보좌관 임용에 따라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과 기능을 바꿔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경제, 산업, 투자유치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전략기획단과 환경부서를 일원화해 녹색성장정책실(준국장급)을 신설하고 환경정책담당관(환경정책과)과 녹색에너지담당관(환경산업과)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제과학국은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과와 전략산업과의 중복기능 일부를 통폐합해 신성장동력과로 집중시켰으며 일자리창출과도 신설했다.

투자정책국은 프로젝트 중심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유치과와 투자개발과를 팀제로 운영하고 서울투자유치사무소의 투자유치 기능도 본청에서 총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축산시험장을 농업기술원에 옮겨 축산연구소로, 농업자원관리소 장성분소를 곤충잠업연구소로 개편했으며 수산기술사업소와 해양바이오연구원을 해양수산과학원으로 통폐합했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변죽만 울린 반쪽 감사, 의혹만 키웠다" 의문점 해소 못하고 책임 공방만 낳아

전남도의회의 F1(포뮬러원) 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총체적 난맥상인 대회의 의문점 해소가 아닌, 양측의 공방만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돼 변죽만 울린 '반쪽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2일 F1 대회가 끝난 뒤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F1 대회의 정영조 KAVO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KAVO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기는 커녕, 전남도와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혹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정 대표를 불러놓고 미리 준비한 질문만 이어가다 정작 필요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에 쫓겨 답변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KAVO의 경영책임을 몰아치다가 정 대표가 "전남도도 이사회를 통해 관여하고 있다"고 반박한 데 이어, 주동식 전남도 F1 대회지원본부장이 "이사회에서 냈던 반대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맞대응하자 어물쩍 넘어가기도 했다.

'보안'을 이유로 자료 공개마저 거부한 데 이어 '깜짝 놀랄만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도 정작 중복질문으로 시간을 축내는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파헤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공사비 추가 부담 규모나 특수전자설비 공사비 증액 논란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KAVO간 입장이 서로 다른데도 명쾌하게 파헤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이처럼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문점을 해소하지는 못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교 수 진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현직
1	이환수 (이사장)	철학	미국 일리노이대학졸업, 5.18북미주대표, TX한인회장&상공회의소 회장, 한미인권연구소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최정만 학장	신약/선교학	서울대졸업, 미국Fuller대(석,박사), 이화여대, 총신대, 숭실대, 고신대강사, 광신대교수역임,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장, 한국신학자 최우수학술대상수상
3	채영애	실천신학	미국미시건대학교(학사), 영국브리스톨대학교(석사), 미국존합킨스대학교(석사), 미국콜럼비아대학교(Ph.D), 미국쥴리안센터(연구원), 미국풀러신학대학원(연구원), 총신대학교 신교대학원(교수), JDI대표
4	윤영혁	조직/신학	총신대학교(M.Div.), 미SouthWestern대학교(Th.M), Regent대학교 조직신학(Th.D)
5	김명호	구약학	전남대학교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Div.), 전남대학교강사, 이스라엘히브리대학교 고대근동어(Ph.D), 광신대학교구약학교수역임,
6	전원호	신약학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란깜펀신학대학(박사과정), 독일브레멘한인교회 담임, 벨기에브뤼셀한인교회, (현)광주은광교회 담임
7	조태익 (교목실장)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현) 담양읍교회 담임
8	임 영	선교/영어	조선대학교 (영문학 학사, 석사, 박사) 선교총회(M.Div), 조선대, 동신대, 호신대 출강.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린사회교육원부설 국제어학원장
9	김응렬	실천신학	한국성서대학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국ITS 목회학(박사과정), 한국사회교육원 교수,(현)세계복음사역원원장, 한국사회교육원 중앙COT강력치유훈련 원장, (현)남양주 푸른초장교회 담임목사
10	고경태	조직신학	총신대신대원(M.Div.)총신대학교(조직신학 Ph.D)취득, (현)주님의교회 담임
11	신동구	실천신학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Th.M)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예루살렘성서대학(Th.D), 백석대학교(Th.D), (현)주님의교회 담임
12	김봉진	윤리학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대원(M. Div.), 호남신대(Th.M), 장신대대학원(Th.D)(현)담양개동교회 담임
13	손순용	사회복지학	전남대학공과대학, 경영대학원(인사관리) 동신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전남도립대학교수
14	정현필 (연구처장)	창조과학	한국항공대학교항공공학박사, 조선이공대학교수, 창조과학회이사
15	강대영	실천신학	전남대학교졸,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교(Th.D.), (현)월송교회 담임
16	최사채	실천신학	개신원대학교(M.Div.), (현)영광엽산제일교회 담임
17	김원식	교회 음악	전남대학교음악학과, 미국워싱턴대학교졸, (현)호신대학교강사
18	이길수	부흥 신학	감리교신학대학원졸업. 예수전도단(YWAM)DTS훈련강사, 새물결선교회부회장, 강사, (현)광주예향교회 담임
19	진장환	기독교 교육	개신원(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서울경기신학교수

Th.M.(신학석사)과정 개설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완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최고의 교수진 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진로 보장 ① 이 과정에 입학자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을 현장강의 함.
② 우수졸업생 해외 Ph. D. 과정 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③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④ 수업시간: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 (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학장 직접상담 ☎ 010-7413-1215, 061) 381-0000,1365

세린사회 교육원
• 웃음 치료(월 5만원) • 텝스 영어(월 10만원)
• 영어 성경(월 10만원) • 워십 찬양리더자 교육(월 7만원)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적의 교육환경
- 3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채플(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 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 최 단기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 대 교단 총회인준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안수, 선교사파송(책임진로지도)
5. Venture Spirit
- 전문성과 은사 그리고 Venture Spirit 를 가진 전문가(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로 중국선교, 몽골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선교, 베트남선교, 캄보디아선교, 태국선교, 인도선교, 파키스탄선교, 중동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실시.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이 주어지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 자매교회에 단기 인턴쉽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 해외 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심포지엄 포럼,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 복수 학위제 실시
-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뜨거운 영성과 날카로운 지성의 조화
광주바이블칼리지
Gwangju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http://www.gjbc.kr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산 72번지

평생교육의 1번지
세린사회교육원
후 원 : Chemolee Lab, Corp.(U.S.A)
TEL. 061) 381-1365/0000
FAX. 061) 381-1367